

꼬빌리시교회 한국어 주일예배

2023. 2. 12. 11:28-

회중찬양 - 찬양팀 인도(11:15부터)

예배의 초청 - 시편 142:3,5,7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여는 기도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 아멘.

감사찬송 - 통28[새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통 28

찬양

R. Robinson, 1758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삼상 7:12)

NETTLETON: B.7.B.7.D.

Wyeth's Repository of Sacred Music, 1813

보통으로

1. 복의 근원강림 하사찬송 하게하소서 한량 없이자비 하심측량 할길없도 다
 2. 주의 크신도움 받아이때 까지왔으니 이와 같이천국 에도이르 기를바라 네
 3. 주의 귀한은혜 받고일생 빛진자되 네 주의 은혜사슬 되사나를 주께매소서

천사 들의찬송 가를내게 가르치소서구속하신그사랑을항상찬송합니다
 하나 님의품을 떠나죄에 빠진우리 를예수구원하시려고보혈흘려주셨네
 우리 맘은연약 하여범죄 하기쉬우 니하나님이받으시고천국인을치소서아멘

기도

교회공동기도

-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취 주소서.
- 전쟁 중에 있는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소서.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자들과 그들을 돕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소서.

개인기도

대표기도: 김영만 선교사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악에서 구하소서 /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아멘.

어린이시간

교회소식

2023년 공동체 주제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 깨어나라!

1. 성도의 교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2. 다음 주일(2.19)에도 꼬빌리시 야곱의 사다리 교회당에서 11시 28분에 한국어예배가 있습니다. 11시 15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3. 오늘 예배후에 교회학교 공과공부, 티타임 교제, 청년브릿지 성경모임이 있습니다.
4.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대표집사회가 있습니다.
5. 주중 장년 성경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7시에 같은 본문으로 두 번 진행됩니다. 가능하신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6. 꼬빌리시한인교회 인터넷홈페이지(<https://praguechurch.kr>) 정보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7. 가칭 <꼬빌리시 중창단>을 (수시)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 다음 대표기도 순서: **주승민** 김지영 강주희 정양숙 배우리 김동석 정태훈 김주연 김원석 최소윤 예창열 박상훈 여경화 김명희 장정임 서규성 이인선 문수진 한수연 김영만

성경읽기 - 마태복음 5장 1-12절

-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설교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병 낫기를 소망해서,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혹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무리를 보신 예수님은 조용히 산을 오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무리 중에 일부가 그분을 따라 산을 오릅니다. 그렇게 예수님 주위로 더 작은 규모의 공동체가 산 위에 형성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산을 오른 사람들, 예수님께 배우려고 몇 걸음 더 수고하여 나아간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들'이라 부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아마도 이 한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는 열쇠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πτωχοὶ τῷ πνεύματι)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어쩌서 그 사람이 복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 '심령'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뉴마'입니다. 영어로는 spirit, 우리말로로는 '영'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란 "The poor in the spirit" (NIV), '영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뭔가 더 어려워진 느낌이죠. 그냥 쉽게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 안 될까?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은 heart입니다. 이 heart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마음의 깨끗함. 그런데 팔복의 시작인 이 3절에서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Poor in the spirit, 영의 가난함입니다.

여기서 '영'(πνεῦμα/spirit)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 즉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가리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기관입니다. '가난'(poor)은 뭐가 없는 상태를 말하죠. 부정적 의미로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결핍된 상태, 긍정적 의미로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게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의 가난이 복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후자의 의미일 것입니다. 채워질 수 있기에 비어 있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영에 가난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지금 비워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의 가난이 오히려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없다, 어떠한 변화도 필요없다, 그야말로 이미 충분한 인생,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의 가난함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내 영이 이미 나와 내 것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에게서 오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배부른 자, 지금 부유한 자, 지금 올 일이 없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배고픈 자,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우는 자가 오히려 복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벼랑끝에 몰린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가난한 자가 그 복을 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지금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보다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뻗을 가능성은 높지만 반드시 그렇다 말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 마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라 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 천국의 복은 우리가 죽은 뒤에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또 비어 있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천국의 복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4) 애통한다는 것은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슬프고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코비드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지난 주간에 우리는 또다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매몰되었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의 의미를 누구도 다 안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어떤 말도 충분한 위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끝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애통하는 것이 다시 없으리라'(계21:4)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대담한 소망의 말씀을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위로'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다운 위로를 의미할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슬프고 아픈 현실 속에서 하늘을 향해 통곡하며 호소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이 그 영의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메시지성경)

이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5) 일반적으로 '온유한 자' 하면 성품이나 표정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연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온유'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제어하며 물릴 줄 아는 능력, 악에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능력, 하나님을 의뢰하고 소망함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며 뒤로 물릴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있는 땅도 다 빼앗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땅은 분명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온유한 자의 전형이신 예수님은 머리 뉘일 땅 한 평 갖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 마음의 땅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그대로 다 품을 만큼 넓었고, 그가 지나간 마음의 자리에는 마치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듯 새 땅이 만들어지곤 했으니,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땅이란 이 세상 사람들 마음과 관계 속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것입니다. 땅을 투기와 이윤의 대상으로만 보면 이 예수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땅은 '생명의 터전'입니다. 땅은 생명을 받아 안고, 생명을 움트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또한 생명을 꽃피게 하고 열매맺게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뒤로 물려 마련된 공간을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명의 터전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설 땅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실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가 하나님께 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만연한 불의로 인해 억울함을 경험한 사람, 이 세상 어디에도 호소할 길이 없어 가슴을 치며 하늘을 향해 호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죄악과 불의를 마주하고 무력함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구하며 갈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 비참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일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복이 있다, 배부름을 경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의에 대한 갈망, 그 영의 가난함 속에서 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림과 비참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래서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뻗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배부름과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7),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8),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9),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10),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들을 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집이나 땅이나 돈이나 음식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말 복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지 달리 생각하게 되리란 것입니다. 누가 복있는 사람입니까? 영의 가난함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뻗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사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나와 내 것으로 꽉 차 있던 곳을 비워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새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후 기도

사랑의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당신을 따라 산을 오른 제자들에게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을 다시금 새겨보았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0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통일 98)

J. G. Small, 1863

I've found a Friend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 15:15)

예수 그리스도

FRIEND: 8.7.8.7.D.
G. C. Stebbins, 1878

보통으로

1.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2. 내 친구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3.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 주사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의 의안에 있어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 능히 끊을 소냐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몸과 맘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쉬은 기타코드(capo=1st) A^b→G E^b7→D7 D^b→C B^b7→A7

봉헌/목회기도

영광찬송 -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Tim Hughes

Here I am to wo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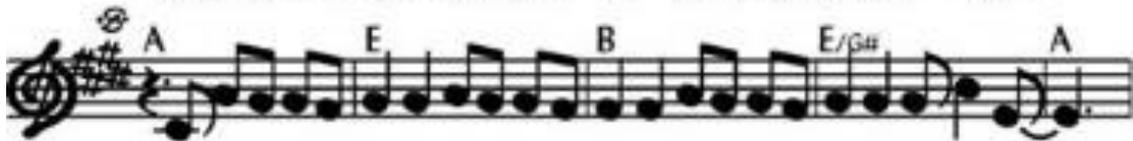
예수찬양모임 역



1. 빛되신주어둥 가운데비추 - 사 내 눈보게하소 - 서 -
2. 만유 - 의 높임 을 - 받으소 - 서 영광중에계신 - 주 -



예배하는 선한 마음주시 - 고 산 소망이 되시 - 네 -
겸손하게 이땅 에 임하신 - 주 높여 찬양하리 - 라 -



나 주를 경배 하리 업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 나님 -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신주 -



- 다 알수 - 없네 - 주의 - 은혜 -



내 죄 - 위한 - 주심 - 자가 - 다 알수 - 자가 -

Copyright (c) 2000 Thankyou Music. Adm. By CopyCare Korea/Paill Int.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Translated & Approved by CopyCare Korea/Paill Int.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내 것으로 꼭 차 있던 곳을 비워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새 것으로 새롭게 채워가기 원하는, 꼬빌리교회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